

# 읽기 메타인지 기반 대학원생 교양 독서 지원이 연구역량에 미치는 영향 - 대학도서관의 역할 재정의 -

## The Impact of Reading Metacognition-Based Liberal-Arts Reading Support on Graduate Students' Research Competency: Redefining University Library's Role

정 서 윤 (Seo-Yun Jeong)\*

장 우 권 (Woo-Kwon Chang)\*\*

### 초 록

이 연구는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 습관,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연구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원생 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 일원분산분석, PROCESS Macro(Model 4)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매개효과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세 가지다. 첫째, 교양 독서 습관과 읽기 메타인지 간의 상관계수는 .851( $p<.001$ )로 극히 높았으며, 읽기 메타인지와 연구역량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596$ ,  $p<.001$ )가 확인되었다. 둘째, 교양 독서 습관이 연구역량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B=.308$ ,  $p<.001$ ), 읽기 메타인지를 통한 간접효과( $ab=.246$ )의 95% 신뢰구간은  $[-.039, .462]$ 로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두 변인 간의 극히 높은 상관에 따른 관별타당도 미확보 및 다중공선성에 기인한 것으로, 대학원생에게 교양 독서와 메타인지적 자기조절이 순차적 단계가 아닌 분리하기 어려운 통합적 인지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읽기 메타인지 수준은 학위 과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4.70$ ,  $p=.010$ ,  $\eta^2=.058$ ). 박사과정생( $n=13$ )의 메타인지 점수가 석사 및 통합 과정생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숙련도 향상에 수반되는 인지적 겸양으로 해석된다. 다만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순차적 매개 구조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읽기 메타인지가 교양 독서와 연구역량을 잇는 핵심적 인지 자원일 가능성을 탐색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 제공자'에서 '인지적 조력 환경' 제공자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며, 석사 과정생을 위한 확산적 독서 지원, 박사 과정생을 위한 심화형 인지 조절 지원, 연구적 독서 공동체 조성을 탐색적 실천 방안으로 제안한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iberal-arts reading habits, reading metacognition, and research competency among graduate students, and, based on the findings, to discuss implications for university library research support. An online survey of 157 Korean graduate students was condu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OVA, and bootstrap-based mediation analysis (PROCESS Macro Model 4). Three key findings emerged. First, liberal-arts reading habits were extremely strongly correlated with reading metacognition ( $r=.851$ ,  $p<.001$ ), which in turn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research competency ( $r=.596$ ,  $p<.001$ ). Second, although the total effect of reading habits on research competency was significant ( $B=.308$ ,  $p<.001$ ), the indirect effect through metacognition ( $ab=.246$ )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s its 95% confidence interval included zero ( $[-.039, .462]$ ). This null result is attributed to multicollinearity and insufficient discriminant validity arising from their high correlation, suggesting that reading and metacognitive self-regulation function as an inseparable, integrated cognitive mechanism rather than sequential stages. Third, reading metacognition differed significantly by degree program ( $F=4.70$ ,  $p=.010$ ,  $\eta^2=.058$ ). Doctoral students ( $n=13$ ) reported lower metacognitive self-assessments than master's students, possibly reflecting cognitive humility accompanying growing research proficiency. Given that a sequential mediation structure could not be confirmed, this study tentatively proposes, at an exploratory level, that reading metacognition may function as a key cognitive resource linking liberal-arts reading and research competenc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as an implication, that university libraries may need to move beyond their role as mere "information providers" toward functioning as "cognitive support environments," tentatively proposing divergent reading support for master's students, advanced metacognitive regulation support for doctoral students, and the fostering of research-oriented reading communities.

키워드: 대학도서관, 대학원생, 연구역량, 교양 독서, 읽기 메타인지

Academic Library, Graduate Students, Research Competency, Liberal-Arts Reading, Reading Metacognition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박사통합과정수료(hee0310@jnu.ac.kr / ISNI 0000 0005 2972 6785)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wk1961@jnu.ac.kr / ISNI 0000 0004 6437 530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8월 21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9월 10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3): 177-197,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3.177>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문헌정보학 담론 내에서 독서 연구는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와 정보활용능력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독서 교육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며, 도서관이 최적화된 독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김현숙, 강보라, 2020). 관련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이용자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 경험과 도서관 서비스를 제안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명희, 2012; 정연경, 2017; 한복희,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집단별 요구를 도서관 서비스에 투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됨에도, 학문의 후속세대이자 대학도서관의 중추적 이용자인 대학원생의 독서 행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학술적 공동(void) 상태에 놓여 있다. 국내 연구가 주로 학령기 학생과 학부생을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전문 연구자로서의 이행기에 있는 대학원생만의 고유한 독서 양식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전공 문헌의 심층적 독해는 물론, 융합적 사고와 독창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교양 독서를 요구받는 집단이며, 이들의 독서 경험이 실제 연구역량의 형성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학술적 공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급히 메워질 필요가 있다. 최근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은 파편화된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성을 근간으로 하는 고차원적 역량 함양을 요구하고 있다(최윤미 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학문 공동체의 질적 지식 생산을 결정짓는 핵심 변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나승일 외, 2009). 특히 독창적 문제 제기와 비판적 성찰이 강조되는 박사과정 이상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확산적 사고는, 현재의 국내 대학원 교육이 전공 지식 중심의 형식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심각한 교육적 괴리를 드러낸다(신현석, 2011; 이정미, 이길재, 2018).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자원으로 '교양 독서'의 가치에 주목한다. 교양 독서는 전공의 제한적 시야를 확장하여 다학제적 문제의식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력과 지적 통찰력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손동현, 2009), 이는 전공 외부의 관점을 체득하여 자신의 연구 맥락에 투영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이자 초연결 시대의 융합 연구를 촉진하는 아이디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김양선, 2018; 이국환, 2014; 2017; 이하준, 2020). 더욱이 정규 커리큘럼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비형식 학습(non-formal learning)의 성격을 띤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는, Knowles(1975)가 강조한 학습자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성장의 토대 위에서 연구자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유의 외연을 넓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양 독서의 가치가 실제로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경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교양 독서라는 경험이 실제 연구역

량으로 전이되기 위해 이를 연결하는 인지적 매개 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 핵심 변인으로 '읽기 메타인지'를 상정한다. 읽기 메타인지는 독서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상위 인지 능력으로, 독해의 질과 학습의 자율성을 결정짓는 요소이다(Baker & Brown, 1984; Flavell, 1979; Mokhtari & Reichard, 2002).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읽기 메타인지가 자기주도학습 및 정보탐색행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임이랑, 2016; 최문정, 2013)를 고려할 때,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 경험이 읽기 메타인지를 통해 비판적 해석력으로 조직될 때 비로소 연구역량의 실효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학습 전이 이론(Perkins & Salomon, 1988; 1992)의 관점에서 보면, 한 맥락(교양 독서)에서의 학습 경험이 새로운 맥락(연구 역량)으로 성공적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읽기 메타인지)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습 전이 이론은 전이가 발생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이론일 뿐, 교양 독서 습관이 읽기 메타인지에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방향성 자체를 입증하는 이론은 아니다. 본 연구는 독서 행동의 반복적 실천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적 읽기 전략을 연습할 기회가 함께 형성될 수 있다는 발달적 관점에서 이러한 방향을 잠정적으로 상정하였으며, 이는 확정된 인과 순서가 아니라 탐색을 위해 채택한 이론적 가정임을 밝힌다.

이러한 이론적 논거는 대학도서관의 역할론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 제공과 연구데이터 관리 등 기술적 연구지원 서비스에 집중해 왔으나(김지

현, 2015; 이란주, 김수진, 2015), 연구자의 역량은 단순한 정보 접근성을 넘어 수집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논리에 통합하는 인지적 과정의 지원을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료의 저장소를 넘어,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 경험이 연구역량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인지적 조력 환경'으로 기능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학습자의 메타인지적 사고를 자극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 습관,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며, 대학도서관의 역할 재정의는 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될 수 있는 시사점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도서관 독서 지원은 여전히 학부생 대상의 이벤트나 문화 진흥 활동에 머물러 있으며,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와 연구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실증 연구는 극히 드물어, 도서관의 연구지원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경험적 데이터가 시급한 상황이다(정연경, 2017; 황금숙, 2020).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와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도서관의 차별화된 연구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주요 변수 간의 상관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기반 연구지원 체계의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석사 과정을 위한 확산적 독서 지원과 박사 과정을 위한 심화형 인지 조절 지원을 설계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가?
- 연구문제 2. 성별, 전공계열, 학위과정 등 개별 특성에 따라 주요 변수(교양 독서,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3. 분석 결과는 대학도서관 기반의 대학원생 교양 독서 지원 모형을 설계하는 데 어떠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독서와 대학원생 연구역량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 연구는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와 정보활용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환경과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김현숙과 강보라(2020)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 연구는 독서교육, 독서문화, 독서 프로그램, 독서효과를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도서관이 독서 촉진과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이용자 집단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따라 독서의 의미와 효과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복희(2007)는 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

을 통해 독서의 정서적 안정 효과를, 이명희(2012)는 대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 지도 연구를 통해 독서와 역량 교육의 연결 가능성을, 정연경(2017)은 대학도서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학생 독서 지원 서비스 체계화의 방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가 독서를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 설계와 교육적 지원의 실천적 영역으로 인식해 왔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연구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나 학부생에 집중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따라서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집단의 독서 경험과 연구역량 형성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학술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대학원생은 전공 학술문헌의 정독자이자 동시에 새로운 연구문제를 형성하고 학문적 글쓰기를 수행해야 하는 연구자이므로, 이들의 독서 경험은 단순한 독해 차원을 넘어 연구문제 탐색, 정보 재구성, 관점 확장과 같은 고차원적 활동과 내재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이 단순히 지식 습득이나 선행연구 요약이 아니라, 문제 설정, 정보 평가, 비판적 사고, 학술적 표현을 포함하는 복합적 능력의 발달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나승일 외, 2009; 최윤미 외, 2010), 교양 독서와 같은 비형식 학습이 이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요구된다.

### 2.2 교양 독서,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의 인지적 메커니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교양 독서 습관과 읽기 메타인지는 이론적으로 구분되는 구성개념

임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교양 독서 습관은 독서 행동의 빈도·지속성과 관련된 행동적 개념인 반면, 읽기 메타인지는 독서 과정에서의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두 개념은 이론적 층위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는 그 자체로 종합적 사고력과 문화적 통찰력을 확장하는 지적 활동이다. 손동현(2009)은 교양교육을 단순한 보충적 교육이 아니라 인간 이해와 통합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핵심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국환(2014; 2017)은 독서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의 토대이자 고전적 텍스트 읽기가 사고의 깊이를 확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양 독서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과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연결된다: (1) 연구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확대, (2) 비판적 사고와 다관점적 이해 촉진, (3) Knowles(1975)가 강조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비형식 학습의 성격을 통한 연구자로서의 주체성 확립이다.

그러나 교양 독서가 연구역량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매개 기제가 필수적이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Flavell, 1979)으로, 읽기 맥락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이해 상태를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전략을 선택·조절하는 자기조절적 독해 능력을 의미한다(Baker & Brown, 1984; Mokhtari & Reichard, 2002). 메타인지는 학습 목표의 설정, 전략의 선택, 수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포괄하는 자기조절학습의 핵심 지식으로 규정되며(Pintrich, 2002; Schraw & Dennison, 1994), 이러한 조절적 성격으로 인해 학습자가 텍스트에 구성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수행을 예측·통제하는 데 관여한다(Pressley & Afflerbach,

1995; Veenman et al., 2006). 국내 연구에서도 임이랑(2016)은 읽기 메타인지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임을, 최문정(2013)은 메타인지가 대학생의 정보탐색 전략 선택과 탐색 결과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논의는 읽기 메타인지가 단순한 독해 기법이 아니라, 대학원생의 정보 해석과 연구적 판단, 글쓰기 등 연구역량의 기반이 되는 인지적 능력임을 시사한다. Perkins와 Salomon(1988; 1992)의 학습 전이 이론에 따르면, 한 맥락(교양 독서)에서의 학습 경험이 새로운 맥락(연구 역량)으로 성공적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읽기 메타인지)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대학원생이 교양 독서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더라도 이를 자신의 연구문제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자기조절적 활동이 수반될 때 그 효과는 강화되며, 이는 '상황적 전이'에서 '추상적 전이'로 나아가는 과정(Haskell, 2000)에 해당한다.

### 2.3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연구 기반의 교양 독서 지원 모형

대학도서관은 전통적으로 학술자료의 수집·조직·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학술정보 활용교육, 데이터 관리, 연구 성과 지원 등 연구지원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김지현, 2015; 이란주, 김수진, 2015). 그러나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가 전공과 연구단계, 과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Kuhlthau, 1991)을 고려할 때, 도서관의 지원은 획일적 정보제공을 넘어 연구자의 실제 인지적·학습적 요

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원생을 위한 독서 지원은 단순한 추천도서 제공이나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교양 독서를 통해 형성한 문제의식과 통찰을 연구역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지원 서비스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전공 외부의 지식(교양 독서) → 자기조절적 이해(읽기 메타인지) → 연구역량 강화(산출)라는 투입-과정-산출의 모형을 검토 틀로 설정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개념적 틀에서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와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대학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기반 대학원생 교양 독서 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C대학교 대학원생(석·박사 과정)을 포함한 국내 대학원생이며, 자료 수집은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각 학과 조교를 통한 공지 채널과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채팅방을 통한 자발적 참여 안내라는 두 가지 경로로 배포되었으며 총 160부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이 중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된 3부를 제외한 157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모집 방식의 특성상 경로별 안내 대상자 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응답률은 산출하지 못하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자발적 참여 경로의 경우 독서나 자기계발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원생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표본은 C대학교 중심의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표본으로, 위와 같은 자기선택 편향의 가능성과 함께 전국 대학원생으로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분석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96명(61.1%), 남성 61명(38.9%)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위 과정은 석사 과정 117명(74.5%), 석·박사 통합 과정 27명(17.2%), 박사 과정 13명(8.3%)으로, 석사 과정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공은 계열 기준으로 인문·사회 계열 95명(60.5%), 이공·자연 계열 60명(38.2%), 예체능 2명(1.3%)으로 분포하였다.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보고서 작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3명(91.1%)으로, 표본이 실제 연구 수행 경험을 갖춘 대학원생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2 측정 도구 및 문항 구성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학습 전이 이론의 개념적 틀을 반영하여 일반적 특성 및 연구배경, 교양 독서 습관,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의 네 영역으로 측정 도구를 구성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57)

| 구분       | 범주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여성         | 96    | 61.1  |
|          | 남성         | 61    | 38.9  |
| 연령       | 20대        | 103   | 65.6  |
|          | 30대        | 46    | 29.3  |
|          | 40대        | 8     | 5.1   |
| 학위 과정    | 석사 과정      | 117   | 74.5  |
|          | 석·박사 통합 과정 | 27    | 17.2  |
|          | 박사 과정      | 13    | 8.3   |
| 전공 분야    | 인문·사회 계열   | 95    | 60.5  |
|          | 이공·자연 계열   | 60    | 38.2  |
|          | 예체능        | 2     | 1.3   |
| 논문 작성 경험 | 있음         | 143   | 91.1  |
|          | 없음         | 14    | 8.9   |

전공 계열은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경영학을 인문·사회 계열로, 공학, 자연과학, 의학을 이공·자연 계열로 재범주화한 것이다(세부 전공별 빈도: 사회과학 35, 공학 30, 인문학 30, 자연과학 25, 교육학 17, 경영학 13, 의학 5, 예체능 2).

첫째, 일반적 특성 및 연구배경 영역은 성별, 연령, 학위 과정, 전공 분야, 대학원 재학 기간,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작성 경험, 최근 1년 이내 연구 활동 단계, 논문 작성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연구실 세미나 또는 교수 면담 빈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응답자의 배경을 파악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분류 변수로 활용하였다. 특히 학위 과정, 전공 분야, 논문 작성 경험 등은 대학원생의 연구 단계와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핵심 배경변인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교양 독서 습관 영역은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영역은 교양 독서의 중요성 인식, 독서의 지속성, 독서 계획의 수립과 실천, 독서 후 정리 및 적용 경험, 인문·사회 분야 도서 선호, 독서의 생활화 등 교양 독서와 관련된 태도와 습관을 포괄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들을 종합하여 대학원생

의 교양 독서 습관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학습 전이 이론에서의 ‘투입(input)’에 해당하는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경험을 반영한다. 다만 본 설문에서는 ‘교양 독서’에 대한 별도의 조작적 정의나 예시를 응답자에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항 구성(예: “철학, 역사, 사회과학 등 교양 분야의 책을 자주 선택한다”)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의 비전공 도서 독서로 그 범위를 암묵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별로 교양 독서의 범위를 상이하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읽기 메타인지 영역은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영역은 읽기 전 계획 수립, 읽는 중 이해 점검, 전략 조절, 읽은 후 요약 및 정리 등 자기조절적 읽기 과정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Baker와 Brown(1984)과 Mokhtari와 Reichard(2002)의 메타인지 측정 틀을 바탕으로 하여, 응답자가 독서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얼마나 점검하고 조절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학습 전이 이론에서의 '과정(process)'에 해당하는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넷째, 연구역량 영역은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영역은 비판적 사고, 정보활용, 창의적 문제 해결,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능력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와 이론의 비판적 검토,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평가, 새로운 문제 탐색과 아이디어 생성, 연구 과정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전이 이론에서의 '산출(output)'에 해당하는 연구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교양 독서 습관 척도(30문항)는 손동현(2009), 이국환(2014) 등의 논의에서 제시된 교양 독서의 기능적 속성을 반영하여 교양 독서의 가치 인식(문항 1~10), 독서 실천 및 지속성(문항 11~20), 독서를 통한 사회적 확장(문항 21~30)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읽기 메타인지 척도(30문항)는 Mokhtari와 Reichard(2002)의 MARSI(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Inventory)를 기본 틀로 하되, 초·중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원 도구의 문항을 대학원생의 학술적 읽기 맥락(전공 문헌 및 학술논문 독해)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여 읽기 전 계획 및 예측(문항 1~10), 읽는 중 이해 점검 및 전략 조절(문항 11~20), 읽은 후 정리 및 심화(문항 21~30)의 3개 하위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역량 척도(24문항)는 최윤미 외(2010)

가 제시한 대학원생 연구역량의 핵심 요소를 참고하여 비판적 사고(문항 1~6), 정보활용능력(문항 7~12), 창의적 문제해결(문항 13~18), 학술적 글쓰기(문항 19~24)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원 도구 대비 세부 문항의 수정 내용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expert review)을 별도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Pilot Test)를 통해 문항의 가독성과 표현의 명확성만을 검토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조사 자료( $N=157$ )를 대상으로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는 평행분석(1,000회)과 스크리 도표를 종합하여 결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공통성 기준 0.40 이상, 누적 분산설명률 기준 50% 이상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교양 독서 습관은 1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기준 미충족 문항과 분산설명률 충족을 위한 추가 제거 과정을 거쳐 최종 6문항(문항 12, 16, 19, 24, 25, 27)이 선정되었다. 최종 척도는 고유값 3.628, 분산설명률 52.69%, Cronbach's  $\alpha=.869$ , KMO=.875, Bartlett  $\chi^2=396.469(p<.001)$ 로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 그러나 읽기 메타인지와 연구역량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였음에도 설정 기준을 충족하는 안정적인 문항 집합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세 척도 모두 원 문항 전체의 평균(교양 독서 습관 30문항, 읽기 메타인지 30문항, 연구역량 24문항)을 잠정적 척도점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 제약상 확정 척도(6문항)가 아닌 원문항 전체 평균을 잠정 척도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후 제시되는 모든 상관·매개효과 결과는 확정된 구성타당도 위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다. 신뢰도(Cronbach's  $\alpha$ )가 높다는 사실은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보여줄 뿐 구성타당도를 대체하지 못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문항 평균 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하위영역별 분리 척도를 구성할 경우 각 하위영역의 문항 수가 지나치게 적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체 평균을 잠정적으로 채택하였다. 다만 교양 독서 습관의 경우 요인분석을 통해 양호한 신뢰도·타당도를 갖춘 6문항 척도가 별도로 확정되었음에도 30문항 평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도 저하 우려만으로는 충분한 정당화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이에 4장에서는 확정된 6문항 척도를 활용한 보충적 재분석을 병행하여 두 척도 간 결과 차이를 비교·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선택이 개념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방향으로 결과에 편향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 연구의 핵심적인 방법론적 한계이며, 읽기 메타인지와 연구역량의 구성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결과임을 명시한다. 따라서 이후 제시되는 모든 상관·회귀·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확정적 인과관계의 증거가 아니라 탐색적(exploratory) 수준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양 독서 습관과 읽기 메타인지 간 상관계수가  $r=.851(p<.001)$ 로 매우 높게 나타나, 평균분산추출(AVE: .411, .320)이 상관계수의 제곱인 공유분산(.724)보다 작아 Fornell-

Larcker 기준상 판별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변인이 개념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후 매개모형 해석 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코딩하고 각 하위 척도별 평균값을 분석 지표로 활용하였다.

### 3.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으로 표본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내적일관성을 검토하였으며,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7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셋째, 주요 변인의 수준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Scheffé 사후검정을 통해 구체적인 차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뿐 아니라 실제적 차이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효과크기( $\eta^2$ )를 함께 검토하여 학위과정별 차이의 실질적 의미를 평가하였다. 다섯째, 교양 독서 습관과 연구역량 간의 관계에서 읽기 메타인지의 매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양 독서 습관을 독립변수, 읽기 메타인지를 매개변수, 연구역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은 Hayes(2013)의 PROCESS Macro(Model 4)를 활용한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95% 편의수정 신뢰구간으로 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만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인 대학생 157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61.1%)이 남성(38.9%)보다 많았으며 학위 과정별로는 석사 과정이 74.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공 분야는 인문·사회 계열(60.5%)과 이공·자연 계열(38.2%)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응답자의 91.1%가 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교양 독서 습관( $\alpha = .950$ ), 읽기 메타인지( $\alpha = .926$ ), 연구역량( $\alpha =$

.830)으로 나타나 모두 일반적 수용 기준(.70)을 충분히 상회하는 신뢰도를 확보하였다(〈표 2〉참조). 다만 .950이라는 매우 높은  $\alpha$ 는 내적일관성이 우수하다는 신호인 동시에 문항 간 중복성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세 변인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여,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독서 습관과 역량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판별타당도 미확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서 2.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변인이 이론적으로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매개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양 독서 습관과 연구역량 간의 관계에서 읽기 메타인지의 매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한 5,000회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 하위 척도    | 문항 수 | Cronbach's $\alpha$ |
|----------|------|---------------------|
| 교양 독서 습관 | 30   | .950                |
| 읽기 메타인지  | 30   | .926                |
| 연구역량     | 24   | .830                |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N=157$ )

| 변인          | $M$  | $SD$ | 1       | 2       | 3 |
|-------------|------|------|---------|---------|---|
| 1. 교양 독서 습관 | 4.16 | 0.60 | 1       |         |   |
| 2. 읽기 메타인지  | 4.22 | 0.50 | .851*** | 1       |   |
| 3. 연구역량     | 4.29 | 0.35 | .537*** | .596*** | 1 |

\*\*\* $p < .001$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경로 a(교양독서습관 → 읽기메타인지,  $B = .704$ , 95% CI [.500, .903])는 유의하였으며, 교양 독서 습관이 연구역량에 미치는 총효과( $c = .308$ , 95% CI [.165, .552]) 역시 유의하였다. 그러나 경로 b(읽기메타인지 → 연구역량,  $B = .349$ , 95% CI [-.047, .752])와 직접효과( $c' = .063$ , 95% CI [-.129, .406]), 그리고 간접효과( $ab = .246$ , 95% CI [-.039, .462])는 모두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총효과와 각 분해효과 간의 이러한 비일관적 패턴은 교양 독서 습관과 읽기 메타인지 간의 극히 높은 상관( $r = .851$ )으로 인해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표준오차가 크게 부풀려지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통계적으로 완전 매개 모형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읽기 메타인지가 교양 독서 습관과 연구역량 사이를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매개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교양 독서 습관 척도는 요인분석 결과 6문항(문항 12, 16, 19, 24, 25, 27)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보였다(고유값=3.628, 분산설명력

=52.69%,  $\alpha = .869$ ). 이에 원척도(30문항 평균)와 별도로 이 확정 척도를 활용한 보충적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양 독서 습관-읽기 메타인지 간 상관은  $r = .744$ 로 원척도( $r = .851$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매개효과 재분석에서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 = .151$ , 95% CI [.040, .302]). 이는 원척도 사용 시 매개효과가 비유의했던 결과가 두 척도 간 문항 중복에서 비롯된 측정상의 인공적 결과(artifact)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두 구성개념을 명확히 변별하는 척도를 사용할 경우 매개효과가 존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확정 척도 자체가 별도의 타당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결과를 확정적 발견으로 채택하기보다 원척도 기반 결과와 병기함으로써 향후 척도 정교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배경변인에 따른 역량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세 척도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교양 독서 습관  $t = 0.734$ ,  $p = .464$ ; 읽기 메타인지  $t = -0.939$ ,  $p = .349$ ; 연구역량  $t = -0.668$ ,  $p = .505$ ). 전공 계열에 따른 차이 역시 세 척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

<표 4> 읽기 메타인지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PROCESS Model 4, Bootstrap  $N = 5,000$ )

| 효과      | 경로                     | B    | $\beta$ | 95% CI [LL, UL] | 판정  |
|---------|------------------------|------|---------|-----------------|-----|
| 경로 a    | 교양독서습관 → 읽기메타인지        | .704 | .851    | [.500, .903]    | 유의  |
| 경로 b    | 읽기메타인지 → 연구역량          | .349 | .503    | [-.047, .752]   | 비유의 |
| 총효과 c   | 교양독서습관 → 연구역량          | .308 | .537    | [.165, .552]    | 유의  |
| 직접효과 c' | 교양독서습관 → 연구역량(매개 통제)   | .063 | .109    | [-.129, .406]   | 비유의 |
| 간접효과 ab | 교양독서습관 → 읽기메타인지 → 연구역량 | .246 | —       | [-.039, .462]   | 비유의 |

간접효과와 95% 신뢰구간은 5,000회 부트스트래핑(Hayes, 2013, PROCESS Macro Model 4)을 통해 산출하였다. 경로 b와 간접효과와 신뢰구간에 모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 변수       | 구분   | 집단     | <i>N</i> | <i>M</i> | <i>SD</i> | <i>t/F</i> | <i>p</i> | 사후검정     |
|----------|------|--------|----------|----------|-----------|------------|----------|----------|
| 교양 독서 습관 | 성별   | 여      | 96       | 4.189    | 0.521     | 0.734      | .464     | -        |
|          |      | 남      | 61       | 4.117    | 0.711     |            |          |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   | 95       | 4.210    | 0.459     | 0.849      | .430     | -        |
|          |      | 이공자연   | 60       | 4.082    | 0.778     |            |          |          |
|          |      | 예체능    | 2        | 4.217    | 0.306     |            |          |          |
|          | 학위과정 | 석사     | 117      | 4.174    | 0.616     | 2.731      | .068     | -        |
|          |      | 통합     | 27       | 4.272    | 0.297     |            |          |          |
|          |      | 박사     | 13       | 3.813    | 0.816     |            |          |          |
| 읽기 메타인지  | 성별   | 여      | 96       | 4.185    | 0.500     | -0.939     | .349     | -        |
|          |      | 남      | 61       | 4.262    | 0.490     |            |          |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   | 95       | 4.227    | 0.384     | 0.082      | .922     | -        |
|          |      | 이공자연   | 60       | 4.198    | 0.643     |            |          |          |
|          |      | 예체능    | 2        | 4.150    | 0.354     |            |          |          |
|          | 학위과정 | (a) 석사 | 117      | 4.243    | 0.483     | 4.703      | .010     | a, b > c |
|          |      | (b) 통합 | 27       | 4.283    | 0.261     |            |          |          |
|          |      | (c) 박사 | 13       | 3.823    | 0.784     |            |          |          |
| 연구역량     | 성별   | 여      | 96       | 4.272    | 0.369     | -0.668     | .505     | -        |
|          |      | 남      | 61       | 4.309    | 0.304     |            |          |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   | 95       | 4.276    | 0.340     | 1.867      | .158     | -        |
|          |      | 이공자연   | 60       | 4.317    | 0.346     |            |          |          |
|          |      | 예체능    | 2        | 3.854    | 0.383     |            |          |          |
|          | 학위과정 | 석사     | 117      | 4.284    | 0.354     | 0.300      | .742     | -        |
|          |      | 통합     | 27       | 4.323    | 0.237     |            |          |          |
|          |      | 박사     | 13       | 4.234    | 0.449     |            |          |          |

전공계열의 예체능 집단( $n=2$ )은 표본이 극소하여 통계적 검정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제시하며, 이를 제외한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자연 계열 2개 집단 재분석 결과는 위 본문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다(교양 독서 습관  $F=0.849$ ,  $p=.430$ ; 읽기 메타인지  $F=0.082$ ,  $p=.922$ ; 연구역량  $F=1.867$ ,  $p=.158$ ). 다만 전공 계열 중 예체능·기타 집단은  $n=2$ 로 통계적 검정력이 확보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인문·사회 계열( $n=95$ )과 이공·자연 계열( $n=60$ )만으로 재분석한 결과에서도 세 척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교양 독서 습관  $F=1.673$ ,  $p=.198$ ; 읽기 메타인지  $F=.129$ ,  $p=.720$ ; 연구역량  $F=.511$ ,  $p=.476$ ).

학위 과정에 따른 읽기 메타인지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4.703$ ,  $p=.010$ ).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박사 과정 집단( $M=3.823$ )이 석사 과정( $M=4.243$ ) 및 통합 과정( $M=4.283$ ) 집단에 비해 읽기 메타인지 자기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교양 독서 습관은 학위 과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경향성이 확인되었고( $F=2.731$ ,  $p=.068$ ), 연구역량은 학위 과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0.300$ ,  $p=.742$ ).

〈표 6〉 학위 과정별 읽기 메타인지 Scheffé 사후검정 상세 결과

| 비교쌍     | 평균차    | p    | 유의성     |
|---------|--------|------|---------|
| 석사 - 통합 | -0.040 | .929 | 유의하지 않음 |
| 석사 - 박사 | 0.420  | .014 | 유의함     |
| 통합 - 박사 | 0.460  | .021 | 유의함     |

효과크기( $\eta^2$ )는 .058로, Cohen(1988)의 기준에서 소(small,  $\eta^2 = .01$ )와 중(medium,  $\eta^2 = .06$ ) 경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학위 과정에 따른 읽기 메타인지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실제적 차이의 크기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5. 논의

이 연구는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 습관과 읽기 메타인지, 그리고 연구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연구지원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횡단적 자기보고 자료의 특성상, 이하 제시되는 유의성 검증 결과가 변인 간 시간적 선후관계나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 습관,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은 상호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교양 독서 습관과 읽기 메타인지 간 상관계수는 .851( $p < .001$ )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AVE와 상관계수 제곱(SV) 비교 결과 판별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두 변인이 개념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거나 문항 구성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하며, 이러한 측정상의 제한은 이후 제시되는 매개효과 분석 결과(간접효과 비유의)의 배경요인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Knowles(1975)가 강조한 자기주도 학습의 자율성이 실제 독서 맥락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는 단순한 텍스트 수용을 넘어 자신의 이해 상태를 점검하고 전략을 선택하는 능동적 인지 활동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두 척도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것으로,  $r = .851$ 이라는 높은 상관성이 실제 개념적 중첩 즉, 두 척도가 사실상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해석은 통계적으로 확정된 발견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해석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인지적 토대가 연구역량과 유의미한 상관( $r = .596, p < .001$ )을 보인다는 점은, 교양 독서가 학제 간 통찰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전공 내 문제를 확장된 맥락에서 재해석하도록 돕는 결정적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트스트래핑에 기반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이다. 교양 독서 습관이 연구역량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읽기 메타인지를 경유하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39, .462]$ 로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핵심 원인은 앞서 확인된 교양 독서 습관과 읽기 메타인지 간의 극히 높

은 상관( $r=.851$ )과 그에 따른 판별타당도 미 확보에 있다. 두 변인을 동시에 회귀모형에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각 경로의 표준오차가 크게 확대되며, 이로 인해 경로 b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출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된다. 다만 요인분석으로 확정된 6문항 척도를 사용한 보충 분석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ab=.151$ , 95% CI [.040, .302]), 이러한 문제가 분석 이후 발견된 것이 아니라 척도 설계 단계에서 예정된 결과일 가능성이 더욱 뒷받침된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매개 모형의 기각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대학원생 집단에게 있어 교양 독서라는 행위와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메타인지적 자기조절은 Perkins와 Salomon(1988: 1992)이 제안한 순차적인 '투입-과정' 단계로 명확히 분리되기보다, 상당 부분 중첩되어 함께 작동하는 통합적 인지 기제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측정 도구가 가진 판별타당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탐색적 추론이며, 향후 두 구성개념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정교한 척도를 통해 재검증되어야 할 가설로 남겨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성별이나 전공과 달리 학위 과정에 따라 읽기 메타인지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F=4.70$ ,  $p=.010$ )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학위 과정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heffé 사후 검정 결과 박사 과정생( $M=3.823$ )의 읽기 메타인지 점수는 석사 과정생( $M=4.243$ ) 및 통합 과정생( $M=4.283$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 현상은 실제 역량의 부족보다는 연구 속

련도 향상에 따른 '인지적 겸양'이나 평가 기준의 엄격화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박사 과정생들은 고도화된 학문적 과업을 수행하며 자신의 읽기 전략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성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가 자기보고식 설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능력이 향상될수록 자신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여 자기평가가 기준이 오히려 엄격해지는 역설적 경향, 즉 Kruger와 Dunning(1999)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행자일수록 자기평가가 정교화되어 오히려 엄격해지는 경향과 유사하다. 다만 이는 해당 이론의 핵심 논지인 저숙련자의 과대평가가 아닌 부수적 발견에 기반한 유비적 해석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점수 차이는 인지적 겸양 외에도 측정오차나 소수 표본( $n=13$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 편향과 같은 대안적 요인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본 해석은 여러 가능한 설명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박사과정생의 낮은 자기평가는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역량의 저하가 아니라 메타인지적 성찰의 심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해석이 주관적 평가에 기반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 단계에 따른 인지적 부하와 요구 역량의 특성이 상이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박사과정 표본이 13명으로 매우 적고 효과 크기( $\eta^2=.058$ )가 소(小)와 중(中)의 경계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확정적 결론이라기보다는 향후 연구를 위한 탐색적 수준의 발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박사과정생의 낮은 자기평

가가 실제 역량 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량 자체의 보완이 아니라 이미 정교화된 메타인지적 성찰을 비판적 문헌평가, 논증 구조화 등 연구 실무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화형 인지 조절 지원'을 역량 결핍의 보완이 아니라, 고도화된 자기평가 능력을 실제 연구 수행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조력으로 재정의하여 제시한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자기평가 점수가 높게 형성된 현상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이 실제 연구 성과로 전이되는 과정은 더욱 복잡한 층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 성과 지표와의 삼각 검증이나 질적 면담을 통해, 교양 독서가 연구 문제 설정 및 학술적 글쓰기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대학도서관은 대학원생 연구지원의 패러다임을 '학술정보 제공'에서 '인지적 조절 환경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연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석사 과정생에게는 연구 주제 탐색을 돕는 '확산적 독서 지원'을 박사 과정생에게는 복잡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 '심화형 인지 조절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단계별 모형 구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확산적 독서 지원은, 교양 독서 습관과 연구역량 간 유의한 상관( $r=.537$ )에 근거하여 석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전공 인접 분야의 교양 도서를 사서가 큐레이션하고 소규모 독서모임·북토크로 연계하는 형태를 상정

할 수 있으며, 참여 전후 연구주제 명료화 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변화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심화형 인지 조절 지원은, 박사 과정생의 메타인지 자기평가 저하 경향( $F=4.70, p=.010$ )에 근거하여 비판적 문헌평가 워크숍이나 논문 초안에 대한 사서-연구자 컨설팅에 메타인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결합하는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워크숍 전후 문헌 비평문의 논증 구조화 수준을 비교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 설계와 효과 검증은 후속 실험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나아가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교양 독서를 매개로 학제 간 경계를 넘나들며 비판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적 독서 공동체'의 플랫폼으로서, 개인의 인지적 경험이 사회적 검증을 거쳐 고도화된 연구 역량으로 치환되는 지적 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6. 결 론

이 연구는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 습관, 읽기 메타인지, 연구역량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연구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측정 도구의 구성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탐색적 수준의 결과임을 명시하며, 이후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한 방향 제시임을 밝힌다. 연구 결과, 교양 독서 습관은 연구역량에 유의한 총효과를 보였으며, 읽기 메타인지 역시 교양 독서 습관 및 연구역량과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부트스트

래핑 기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읽기 메타인지를 통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명확한 매개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학위 과정에 따라 읽기 메타인지 자기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차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생의 교양 독서가 단순한 정서적 함양을 넘어, 읽기 메타인지와 함께 연구 수행과 관련한 핵심적 인지 자원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기한다. 이 연구의 분석 틀인 ‘투입(교양 독서) → 과정(읽기 메타인지) → 산출(연구역량)’ 모델은 Perkins와 Salomon(1988: 1992)의 학습 전이 이론과 개념적으로 부합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읽기 메타인지를 통한 통계적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독서 경험이 메타인지를 거쳐 연구역량으로 전이된다는 명제는 확정적 결론이 아니라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탐색적 가설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양 독서 습관과 연구역량 간의 유의한 관계는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문화 향유’에서 ‘인지적 연구 지원’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은 연구자의 비판적 읽기와 정보 통합, 나아가 학술적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인지적 조력 환경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술적·실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우선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 대상을 학부생 중심에서 학문 후속 세대인 대학원생으로 확장함으로써 연구의 외연을 넓혔으며, 학습 전이 이론을 매개로 독서 경험이 연구 역량으로 치환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 가설을 제기함으로써 도서관 연구지원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위 과정에 따라 읽기 메타인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차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탐색적으로 시사하여, ‘확산적 독서 지원’과 ‘심화형 인지 조절 지원’이라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탐색적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측정 도구와 관련된 한계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교양 독서 습관은 30문항 중 6문항만이 단일요인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읽기 메타인지와 연구역량은 요인분석의 조건을 충족하는 문항 집합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교양 독서 습관과 읽기 메타인지 간 판별타당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두 척도의 문항 구성(계획 수립, 정리 활동 등)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r=.851$ 이 분석 이후 발견된 문제가 아니라 척도 설계 단계에서 예정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요인분석으로 확정된 6문항 척도를 사용한 보충 분석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원칙도 사용에 따른 결과가 측정도구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인공적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두 구성개념을 판별타당도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과 재검증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교양 독서 습관 척도 역시 독서 습관 일반의 속성을 측정하며 도서 선호 문항을 통해 ‘교양적 성격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하였다. 아울러 측정도구는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없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통한 가독성 검토만을 거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분석 결과는 탐색적 수준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FA), 전문가 패널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 교양 독서 고유 속성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 보강 및 기준에 타당화된 축약형 척도를 활용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표집 및 표본 구성과 관련된 한계이다. 이 연구는 C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편의 표집으로 수행되었으며, 참여자 모집은 각 학과 조교를 통한 공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채팅방을 통한 자발적 참여 안내라는 두 경로로 이루어져 경로별 응답 현황과 전체 응답률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참여는 독서나 자기계발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원생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본 연구의 표본이 교양 독서와 메타인지 수준에서 모집단 평균보다 높게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앞서 제시한 주요 변인들의 4점대의 높은 평균 점수 및 천장효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대학 도서관의 대학원생 대상 서비스 현황이 별도로 파악되지 않

아, 응답자의 독서습관·메타인지 수준이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했는지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아울러 이 연구 목표상 박사과정 표본의 비중이 중요함에도 8.3%(13명)에 그쳐, 이에 근거한 지원 모형 설계는 잠정적 수준에 머문다.

셋째, 자료의 성격과 관련된 한계이다. 이 연구는 특정 시점의 자기보고식 데이터에 의존함에 따라 변인 간의 엄격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따른 자기평가의 관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에는 대학원생의 학위 과정 전반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와 더불어 학술지 게재 성과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삼각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이 연구가 제안한 메타인지 기반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혼합 방법론으로 검증하는 후속 논의를 통해, 대학도서관 연구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고도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양선 (2018). 대학필독서를 활용한 교양교육 사례 연구: 한림대학교 교과, 비교과 영역 운영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9(1), 167-194. <https://doi.org/10.37736/kjlr.2018.03.9.1.167>
- 김지현 (2015).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대한 대학 연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413-436.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413>
- 김현숙, 강보라 (2020).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59-81.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59>
- 나승일, 박희철, 김연정, 장규선, 장현진, 이은경 (2009). 산업교육분야 전공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형성 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3), 87-121.

- <https://doi.org/10.23840/agehrd.2009.41.3.87>
- 손동현 (2009).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대책. *교양교육연구*, 3(2), 5-22.
- 신현석 (201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7(1), 156-192.
- 이국환 (2014).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독서교육. *동남어문논집*, 1(37), 389-421.
- 이국환 (2017).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읽기와 독서교육. *동남어문논집*, 1(43), 199-231.
- <https://doi.org/10.21654/djkl.2017.43.1.199>
- 이란주, 김수진 (2015). 주제별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129-15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2.129>
- 이명희 (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지도 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79-102. <https://doi.org/10.4275/KSLIS.2012.46.3.079>
- 이정미, 이길재 (2018). 대학원 교육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6(2), 229-251. <https://doi.org/10.22553/keas.2018.36.2.229>
- 이하준 (2020). 자기이해로서의 독서와 교양독서교육 비판. *철학논총*, 101, 155-177.
- <https://doi.org/10.20433/jnkpa.2020.07.101.155>
- 임이랑 (2016). 읽기 메타인지 능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정연경 (2017). 대학도서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학생 독서 지원 서비스 방안 연구. *독서연구*, 43, 9-34. <https://doi.org/10.17095/JRR.2017.43.1>
- 최문정 (2013). 인지양식과 메타인지가 대학생의 정보탐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윤미, 김민성, 홍윤경, 남창우 (2010). 연구역량에 대한 이해: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집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2), 1-27. <https://doi.org/10.15753/aje.2010.11.2.001>
- 한복희 (2007).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201-215. <https://doi.org/10.4275/kslis.2007.41.4.201>
- 황금숙 (2020). 스마트 환경에서의 독서문화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독서' 관련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145-177. <https://doi.org/10.16981/kliss.51.202003.145>
- Baker, L. & Brown, A. L. (1984). Metacognitive skills and reading. In P. D. Pearson, R. Barr, M. L. Kamil, & P. Mosenthal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New York: Longman, 353-39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906-911.

<https://doi.org/10.1037/0003-066X.34.10.906>

- Haskell, R. E. (2000). *Transfer of Learning: Cognition and Instru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Association Press.
- Kruger, J. & Dunning, D. (1999). Unskilled and unaware of it: how difficulties in recognizing one's own incompetence lead to inflated self-assess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121-1134. <https://doi.org/10.1037/0022-3514.77.6.1121>
- Kuhlthau, C. C. (1991).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361-371.
- Mokhtari, K. & Reichard, C. A. (2002). Assessing students'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2), 249-259. <https://doi.org/10.1037/0022-0663.94.2.249>
- Perkins, D. N. & Salomon, G. (1988). Teaching for transfer. *Educational Leadership*, 46(1), 22-32.
- Perkins, D. N. & Salomon, G. (1992). Transfer of learning. In T. Husén & T. N. Postlethwaite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2nd ed.). Oxford: Pergamon, 425-441.
- Pintrich, P. R. (2002). The role of metacognitive knowledge in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Theory Into Practice*, 41(4), 219-225. [https://doi.org/10.1207/s15430421tip4104\\_3](https://doi.org/10.1207/s15430421tip4104_3)
- Pressley, M. & Afflerbach, P. (1995). *Verbal Protocols of Reading: The Nature of Constructively Responsive Read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raw, G. & Dennison, R. S. (1994). Assessing metacognitive awarenes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9(4), 460-475. <https://doi.org/10.1006/ceps.1994.1033>
- Veenman, M. V. J., Van Hout-Wolters, B. H. A. M., & Afflerbach, P. (2006). Metacognition and learning: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Metacognition and Learning*, 1, 3-14. <https://doi.org/10.1007/s11409-006-6893-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Moon-Jung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Cognitive Style and Metacognition on

-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Yun-Mi, Kim, Min-Sung, Hong, Yun-Kyung, & Nam, Chang-Woo (2010). Understanding research competency: focusing on perception differences among graduate students, researchers, and professor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2), 1-27.  
<https://doi.org/10.15753/aje.2010.11.2.001>
- Chung, Yeon-Kyung (2017). A study on the method of reading support service for college students through data analysis of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43, 9-34. <https://doi.org/10.17095/JRR.2017.43.1>
- Han, Bok-Hee (2007). A study on the bibliotherapy program for the you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201-215.  
<https://doi.org/10.4275/kslis.2007.41.4.201>
- Hwang, Geum-Sook (2020). A study on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n the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145-177. <https://doi.org/10.16981/kliss.51.202003.145>
- Im, Yi-Rang (2016). A Correlational Study Between Reading Metacognitive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Kim, Hyun-Sook & Kang, Bo-Ra (2020).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59-81.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59>
- Kim, Ji-Hyun (2015). A study on university researchers' perception on data management and shar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413-436.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413>
- Kim, Yang-Sun (2018). A case study on liberal arts education using university required reading lists: focused on the curriculum and extra-curriculum program in Hallym University. *Literacy Research*, 9(1), 167-194. <https://doi.org/10.37736/kjlr.2018.03.9.1.167>
- Lee, Gook-Hwan (2014). Reading education a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Dongnam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37), 389-421.
- Lee, Gook-Hwan (2017). Reading classics and reading education a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Dongnam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43), 199-231.  
<https://doi.org/10.21654/djkl.2017.43.1.199>
- Lee, Ha-Jun (2020). Reading as self-understanding and criticism of liberal arts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01, 155-177.

<https://doi.org/10.20433/jnkpa.2020.07.101.155>

- Lee, Jeong-Mi & Lee, Gil-Jae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graduat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2), 229-251. <https://doi.org/10.22553/keas.2018.36.2.229>
- Lee, Lan-Ju & Kim, Su-Jin (2015). Analysis of precedent research on information behavior of researchers by subjec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129-15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2.129>
- Lee, Myung-Hee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ading guidance course for strengthening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79-102. <https://doi.org/10.4275/KSLIS.2012.46.3.079>
- Na, Seung-Il, Park, Hee-Chul, Kim, Yeon-Jung, Jang, Gyu-Seon, Jang, Hyun-Jin, & Lee, Eun-Kyung (2009). The process of research competency development of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industrial educ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1(3), 87-121. <https://doi.org/10.23840/agehrd.2009.41.3.87>
- Shin, Hyun-Seok (2011). Exploring the future vis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graduate school syste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7(1), 156-192.
- Son, Dong-Hyun (2009). The new status of liberal education and strategies for its reinforcement.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3(2), 5-22.

